

NEW ETF Line-up

삼성, 우리, KB, 한국투자 ETF 4종목 신규상장

1월 4주차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글로벌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 New ETF 개요

상장 개요

'26.1.20(화) 국내 증시에 ETF 4종목 신규 상장

상품 요약

▲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0153K0)

-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고 예상배당 수익률 및 자사주매입률이 높은 상위 30개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WON 초대형IB&금융지주 (0154F0)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대형 증권사와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0151P0)

- 국내 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 산업별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신정부 정책(ABCDE)으로 인해 구조적 성장이 가속화 될 핵심 산업 및 종목에 투자

▲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0153P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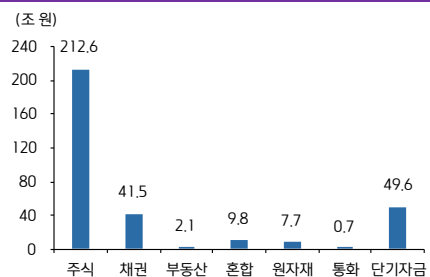
- 국내 리츠·인프라펀드 중 대표 15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국가 인프라·우량 부동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 9.9% 분리과세 가능한 월배당 지급 추구

ETF 시장 Snapshot

구분	'26.01.09~01.16	'26.01.02~01.09
상장 종목 수	1062 개 (▲3 개)	1059 개
순자산 총액	324 조 원 (▲11.6 조)	312.4 조 원
총 거래량	93.2 억 주 (▼0.1 억)	93.3 억 주
총 거래대금	56.7 조 원 (▲4.0 조)	52.7 조 원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6 기준

국내 ETF 유형별 순자산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6 기준

신규 출시 ETF 개요

구분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WON 초대형 IB&금융지주
코드	0153K0	0154F0
상품 유형	주식형	주식형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Akros 주주환원 고배당 지수	iSelect 초대형 IB&금융지주 지수
복제방법	실물 (패시브)	실물 (패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33% (0.289%)	0.29% (0.25%)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30종목	10종목
정기 변경	연 2회(6, 12월)	연 2회(6, 12월)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신규 출시 ETF 개요

구분	RISE 코리아전락산업액티브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코드	0151P0	0153P0
상품 유형	주식형	재간접형
운용사	KB 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기초(비교)지수	KAP 코리아전락산업지수	FnGuide 맥쿼리인프라 배당 리츠 지수
복제방법	실물 (액티브)	실물 (액티브)
총보수 (운용보수)	0.50% (0.459%)	0.06% (0.039%)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48종목	15종목
정기 변경	연 2회(6, 12월)	연 2회(3, 9월)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 신규 출시 ETF 한 눈에 보기

ETF 명
(코드)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0153K0)

개요

-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고 예상배당수익률 및 자사주매입률이 높은 상위 3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특징

-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 수혜가 기대되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여 정책 수혜와 성장 기대, 월중 배당을 추구

기초지수

- Akros 주주환원 고배당 지수

종목 선정 기준

▶ 유니버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

- 기초조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3개월 평균 일 거래대금 30억원 이상, 최근 3년 연속 배당금 지급, 최근 3년간 적자 1회 이하, 배당성향 90% 이하

- Akros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Primary 분류가 Lessors of Real Estate(부동산 임대 등), Other Financial Vehicles(특수목적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 구성종목 선정 절차

- 1)최근 3년 평균 ROE 하위 10% 또는 부채 대비 잉여현금흐름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 2)전년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편입대상

- 3)위 조건 만족하는 기업들 중, 주주환원수익률(예상배당수익률*자사주 매입률) 상위 30종목 편입. *예상배당수익률=향후 12개월 예상 DPS를 비중결정일 총가로 나눈 값. 단, 감액배당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예상배당수익률에 1/(1-0.154)곱하여 조정된 값 사용

투자포인트

▶ 검증된 고배당주 선별 투자: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전년 대비 10% 이상 현금배당 증가라는 고배당 기업 기준을 활용하여 검증된 고배당 기업에 집중 투자. '26년부터 시행되는 新 세제개편안에 따라 예금에서 배당 투자로 머니무브 가능성 전망. 코스피 200지수 대비 높은 ROE와 배당성향(2025.12.15 기준)으로 고배당주가 이끄는 증시 재평가 기대 속 수혜 전망

▶ 주주환원 정책 강화 속 긍정적 추가흐름 기대: 주주환원 정책 일환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에 발맞춰, 기업들의 자발적 소각 공시 급증.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식수 감소로 이어져 EPS 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긍정적 추가흐름 기대. 또한,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 재원을 활용하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경우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세 면제로 실질 배당수익률 상승 기대 여력도 존재

▶ 고배당 ETF 패키지로 끊임 없는 월 현금흐름 추구: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와 'Kodex 고배당주' 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월말 배당을 주는 'Kodex 고배당주'와 함께 월중 배당도 받을 수 있어 분배금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구사 가능

참고자료

머니무브 가능성 전망 속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Kodex 주주환원고배당주'

2026년 이후 자금 흐름 변화 전망

이자소득(예금)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투자)
2,000만원 초과

세금 부담

종합과세 (최대 49.5%)

분리과세 (서울인84)

고배당주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으로 머니무브 기대!

※ 고배당주 편입과 관계없이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의한 종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삼성자산운용, 국세청, 기획재정부 ※ 기준일: 2025.12.31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PBR

PER

ROE

배당성향

주주환원
고배당주

0.89

8.33

10.71

42.52

코스피 200

1.36

16.71

8.14

22.53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 편입

• PBR: 주가를 회사의 장부 가치로 나눈 값으로, 1이하일 경우 저평가로 간주

• PER: 주식 1주를 사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그 주식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배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값

• ROE: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 자료: 삼성자산운용, 한국거래소 ※ 기준일: 2025.12.15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삼성자산운용

ETF 명 (코드)		WON 초대형IB&금융지주 (0154F0)																																																																																																									
개요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특징	- 한국판 'XLF' ETF로서 한국 시장의 금융 섹터를 대표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와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고루 투자																																																																																																										
기초지수	- iSelect 초대형IB&금융지주 지수																																																																																																										
종목 선정 기준	▶ 유니버스 -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거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및 IMA 업무를 인가받은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지주회사 중 '금융보험'에 속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기업																																																																																																										
	▶ 구성종목 선정 - 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종목을 최종 편입하며, 최종 편입 종목 수는 10종목으로 고정 - 유니버스 첫 번째 기준의 종목 수가 10종목 이상인 경우,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 ROE 상위 종목을 순차적으로 편입 - 비중은 동일가중방식 채택																																																																																																										
투자포인트	▶ 금융 대전환기, 한국 금융 도약의 선봉 '초대형 IB': 2026년 금융의 대전환기를 거치며 대형 증권사들은 전통적 브로커리지 모델에서 자기자본 운용 중심(Book-Biz)으로 수익 구조 전환 중. 트레이딩, 발행어음, 대체투자, IMA 등 대규모 자본조달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등 고수익 비즈니스 중심의 구조로 변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인가, 대체투자, 대형 IB 활동 등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 수혜 실현 가능성을 담보																																																																																																										
	▶ K-Financial을 대표하는 '한국판 XLF':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본격화에 따라 자기자본 활용력, 배당 정책, 투자금융 역량을 겸비한 대형 금융지주 및 초대형 증권사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 동 상품은 정책 수혜뿐 아니라 자본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국내 K-Financial을 대표하는 대형 금융지주 및 증권사를 선별 편입. 이를 바탕으로 자본 성장성과 배당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경쟁 상품 대비 포트폴리오 효율성을 높인 균형 잡힌 전략을 구현. 기존 은행, 증권, 금융지주로 따로 분리되어 판단되던 국내 금융 섹터를 하나의 대표 상품으로 정리																																																																																																										
참고자료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금융지주': 은행, 자산운용, 증권 등 복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구조로 수익 안정성이 확보된 금융지주의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모멘텀의 핵심으로 작용. 또한 4대 대형 은행지주사의 경우 13%이상의 CET-1 비율을 기반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노력 풍부하여 정책 수혜와 수익 기반의 균형을 동시에 갖춘 구조를 지님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기초지수 'iSelect 초대형 IB&금융지주'와 타 기초지수 구성 종목 비교																																																																																																										
	<table><tr><th colspan="3">iSelect 초대형IB & 금융지주</th><th colspan="2">KRX 은행</th><th colspan="2">KRX 증권</th></tr><tr><th colspan="3">[TOP10 종목 및 비중]</th><th>종목명</th><th>비중</th><th>종목명</th><th>비중</th></tr><tr><td>1</td><td>미래에셋증권</td><td>10.0%</td><td>1</td><td>KB금융</td><td>28.0%</td><td>1</td><td>미래에셋증권</td><td>24.3%</td></tr><tr><td>2</td><td>키움증권</td><td>10.0%</td><td>2</td><td>신한지주</td><td>22.3%</td><td>2</td><td>한국금융지주</td><td>17.4%</td></tr><tr><td>3</td><td>NH투자증권</td><td>10.0%</td><td>3</td><td>하나금융지주</td><td>15.3%</td><td>3</td><td>NH투자증권</td><td>14.3%</td></tr><tr><td>4</td><td>한국금융지주</td><td>10.0%</td><td>4</td><td>우리금융지주</td><td>11.5%</td><td>4</td><td>키움증권</td><td>14.1%</td></tr><tr><td>5</td><td>KB금융지주</td><td>10.0%</td><td>5</td><td>기업은행</td><td>9.7%</td><td>5</td><td>삼성증권</td><td>13.7%</td></tr><tr><td>6</td><td>신한지주</td><td>10.0%</td><td>6</td><td>카카오뱅크</td><td>6.1%</td><td>6</td><td>신영증권</td><td>4.5%</td></tr><tr><td>7</td><td>하나금융지주</td><td>10.0%</td><td>7</td><td>BNK금융지주</td><td>2.8%</td><td>7</td><td>대신증권</td><td>2.7%</td></tr><tr><td>8</td><td>우리금융지주</td><td>10.0%</td><td>8</td><td>JB금융지주</td><td>2.7%</td><td>8</td><td>한화투자증권</td><td>2.0%</td></tr><tr><td>9</td><td>메리츠금융지주</td><td>10.0%</td><td>9</td><td>IM금융지주</td><td>1.4%</td><td>9</td><td>교보증권</td><td>2.0%</td></tr><tr><td>10</td><td>BNK금융지주</td><td>10.0%</td><td>10</td><td>제주은행</td><td>0.3%</td><td>10</td><td>유안타증권</td><td>1.5%</td></tr></table>			iSelect 초대형IB & 금융지주			KRX 은행		KRX 증권		[TOP10 종목 및 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1	미래에셋증권	10.0%	1	KB금융	28.0%	1	미래에셋증권	24.3%	2	키움증권	10.0%	2	신한지주	22.3%	2	한국금융지주	17.4%	3	NH투자증권	10.0%	3	하나금융지주	15.3%	3	NH투자증권	14.3%	4	한국금융지주	10.0%	4	우리금융지주	11.5%	4	키움증권	14.1%	5	KB금융지주	10.0%	5	기업은행	9.7%	5	삼성증권	13.7%	6	신한지주	10.0%	6	카카오뱅크	6.1%	6	신영증권	4.5%	7	하나금융지주	10.0%	7	BNK금융지주	2.8%	7	대신증권	2.7%	8	우리금융지주	10.0%	8	JB금융지주	2.7%	8	한화투자증권	2.0%	9	메리츠금융지주	10.0%	9	IM금융지주	1.4%	9	교보증권	2.0%	10	BNK금융지주	10.0%	10	제주은행	0.3%	10	유안타증권	1.5%
iSelect 초대형IB & 금융지주			KRX 은행		KRX 증권																																																																																																						
[TOP10 종목 및 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1	미래에셋증권	10.0%	1	KB금융	28.0%	1	미래에셋증권	24.3%																																																																																																			
2	키움증권	10.0%	2	신한지주	22.3%	2	한국금융지주	17.4%																																																																																																			
3	NH투자증권	10.0%	3	하나금융지주	15.3%	3	NH투자증권	14.3%																																																																																																			
4	한국금융지주	10.0%	4	우리금융지주	11.5%	4	키움증권	14.1%																																																																																																			
5	KB금융지주	10.0%	5	기업은행	9.7%	5	삼성증권	13.7%																																																																																																			
6	신한지주	10.0%	6	카카오뱅크	6.1%	6	신영증권	4.5%																																																																																																			
7	하나금융지주	10.0%	7	BNK금융지주	2.8%	7	대신증권	2.7%																																																																																																			
8	우리금융지주	10.0%	8	JB금융지주	2.7%	8	한화투자증권	2.0%																																																																																																			
9	메리츠금융지주	10.0%	9	IM금융지주	1.4%	9	교보증권	2.0%																																																																																																			
10	BNK금융지주	10.0%	10	제주은행	0.3%	10	유안타증권	1.5%																																																																																																			
	* 자료: 각 시 한국거래소, 우리자산운용 (초대형IB 종목 또는 초대형IB 보유 상장모의사) 금융지주 * 기준일 2025년 11월 30일 *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투자 추천과는 무관합니다.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우리자산운용																																																																																																										

ETF 명 (코드)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0151P0)
개요	- 국내외 AI·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제조 산업별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특징	- 신정부 정책 모멘텀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수혜 예상 기업을 선제 포착 후 선별 투자로 초과 성과 달성을 추구
비교지수	- KAP 코리아전략산업지수
종목 선정 기준	▶ 유니버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보통주 중 - 기본요건: 상장 후 3개월 경과 종목(SPAC 제외), 3개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70% 또는 3억원 이상, - 제외조건: 유동비율 10% 미만, 3개월 거래 빈도(거래일수/영업일수) 60% 미만, 연속 적자 횟수 3회 이상이고 50% 이상 자본잠식 종목, 관리종목, 정리매매 해당 종목, 그 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 구성종목 선정: 키워드 유사도 스코어 30% + 시가총액 백분위 스코어 70%로 최종 스코어 상위 5개 종목 선정 - 미래 핵심전략기업 육성 계획을 담은 정부 문서 기반 6개 테마와 11개 키워드 선정 - 테마: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 키워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방산, 에너지 발전,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 - 11개 키워드마다 유사도 스코어 하위 30% 종목 제거 후, 시가총액 백분위 스코어에 0.7, 키워드 백분위 스코어에 0.3 가중치 부과한 최종 스코어 산출. 키워드 별 최종 스코어 순으로 상위 5개 종목 선정 - 비중 산출: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개별 종목 CAP 25%)
투자포인트	▶ 신정부 정책 모멘텀 수혜 예상 기업에 선별 투자: 신정부는 국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ABCDEF(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actory) 산업에 대규모 예산 투입 예상. 각각의 산업정책 효과에 따라 구체적인 수혜 대상의 선별과정을 거쳐 시장에 핵심 테마로 자리잡을 개연성 高.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이익 고성장이 기대되는 정책 수혜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예상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확대 계기 마련 중. 자본시장 효율화, 기업 신뢰 제고 이슈화 시 수출 및 구조 성장 둔화 우려에도 KOSPI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향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정책 시행된다면 KOSPI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 ▶ 정책 효과 선제 포착을 위한 액티브 전략: 정부 정책과 매크로 테마는 지수화가 어렵고, 실제 종목 성과로 반영되기까지 시차 존재. 전문적인 리서치 및 액티브 운용 역량 바탕으로 정책이 종목 성과로 반영되기 한발 앞서 투자하여 초과성과 달성 추구
참고자료	신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ABCDEF 정책  AI 인공지능 AI 고속도로, 국가대표 LLM  Bio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Contents 콘텐츠 K-컬처  Defense 방위 조선 수주, 방산 지원  Energy 에너지 신재생, 전력인프라  Factory 제조업 부활 첨단전략사업, 첨단제조 +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 등 지주회사, 저PBR주 ※ 정부 정책 및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상기 영역(투자대상 산업 및 분야 등) 외에도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거나 일부 또는 전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료: KB자산운용

ETF 명 (코드)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0153P0)																																																				
개요	- 국내 리츠·인프라펀드 중 대표 15개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상품																																																					
특징	- 리츠 ETF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분리과세(9.9%)가 가능한 월배당을 추구하는 액티브 전략형 리츠/인프라 ETF																																																					
비교지수	- FnGuide 맥쿼리인프라 배당 리츠 지수 (시장가격)																																																					
종목 선정 기준	▶ 유니버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 REITs, 인프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제외조건: 관리종목, 정리매매 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유동주식비율 10% 미만인 종목, 20영업일 평균 거래대금 1억원 미만, 종목선정일 기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 구성종목 선정: - 배당요건: 과거 3년 연속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 종목 선별(단, 상장 후 2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2년 연속 배당을 한 종목, 상장 후 2년 미만의 종목의 경우 1년 이상 연속 배당을 한 종목일 경우 편입) - 맥쿼리인프라 우선 편입한 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최대 14종목까지 선정 - 비중결정방식: 수정시가총액(시가총액 x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가중방식. 맥쿼리인프라 29.5%(매일 조정), 리츠 종합 70.5%(매일 조정)																																																					
투자포인트	▶ 정부 정책 지원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차별화된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 증가 및 리츠 조달 비용 하락 등으로 인한 리츠, 인프라 투자 증가. 뿐만 아니라 민투법 개정될 경우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 확대되어 성장성 있는 신규 자산 구축하거나 포트폴리오 안정성 제고 기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인프라금융에 50조원 배분되어 인프라펀드에 새로운 기회. 동 ETF는 국내 ETF 중 인프라 펀드 비중이 가장 많은 상품(약 45%)으로 현금흐름(월배당), 배당안정성 등 측면에서 강점																																																					
	▶ 9.9% 분리과세 가능한 월배당 추구: 리츠 ETF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상장 인프라펀드 직접 투자보다 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월배당을 추구(5,000 만원 한도, 조건 충족 시). 또한 국내 리츠 ETF 중 최저 수준의 총 보수(6bp)에 액티브 운용 방식 채택																																																					
	▶ 액티브 전략 활용으로 주요 이벤트 대응 가능: 유상증자 등과 같은 이벤트는 투자 심리 위축, 투자 의사 결정 필요 등 어려움을 동반하여 리츠 투자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기존의 패시브 리츠 ETF와 달리 액티브 운용 전략을 채택하여 신규 상장, 유상증자, 배당 컷 등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 가능. 해당 이벤트 발생 시 펀더멘털/거래량 분석, 신주인수권 밸류에이션 등을 거쳐 사전, 사후에 투자 의사결정 진행																																																					
액티브 운용 전략으로 리츠 주요 이벤트에 더 편리하고 현명하게 대응 가능한 'ACE 리츠부동산인프라액티브'																																																						
참고자료	유상증자로 인한 추가 급락 사태 · 자료: FnGuide,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유상증자, 신규 상장 등 주요 리츠 이슈 <table><tr><th>구분</th><th>종목명</th><th>시기</th><th>규모</th></tr><tr><td rowspan="4">신규 상장</td><td>한화리츠</td><td>2023년 3월</td><td>약 3,200억원</td></tr><tr><td>삼성FN리츠</td><td>2023년 4월</td><td>약 3,750억원</td></tr><tr><td>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td><td>2024년 7월</td><td>약 1,800억원</td></tr><tr><td>KB알파인프라</td><td>2024년 11월</td><td>약 9,750억원</td></tr><tr><td rowspan="3">유상 증자</td><td>대산별투리츠</td><td>2025년 7월</td><td>약 3,000억원</td></tr><tr><td>SK리츠</td><td>2023년 7월</td><td>약 3,300억원</td></tr><tr><td>신한알파리츠, 한화리츠 등 8개 리츠</td><td>2024년 10월~12월</td><td>약 1조원</td></tr><tr><td></td><td>ESR엔탈스퀘어리츠</td><td>2025년 6월</td><td>약 1,500억원</td></tr></table> · 자료: 삼성증권, 대신증권, 기준일: 2025년 12월 리츠 액티브 ETF의 강점 <table><tr><th>구분</th><th>개별 리츠 투자</th><th>패시브 리츠 ETF</th><th>액티브 리츠 ETF</th></tr><tr><td>신규 상장</td><td>개인 투자 고려</td><td>시가총액 순 기계적인 매매</td><td>펀더멘털·거래량 등 분석 후 펀드매니저 투자 의사결정</td></tr><tr><td>유상 증자</td><td>청약 의사 결정 필요</td><td>기계적인 청약 참여</td><td>신주인수권 밸류에이션 후 투자 의사결정</td></tr><tr><td>배당 컷</td><td>개별적 대응 필요</td><td>편입 유지</td><td>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대응 가능</td></tr></table> · 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tr><td colspan="4">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td></tr>			구분	종목명	시기	규모	신규 상장	한화리츠	2023년 3월	약 3,200억원	삼성FN리츠	2023년 4월	약 3,750억원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2024년 7월	약 1,800억원	KB알파인프라	2024년 11월	약 9,750억원	유상 증자	대산별투리츠	2025년 7월	약 3,000억원	SK리츠	2023년 7월	약 3,300억원	신한알파리츠, 한화리츠 등 8개 리츠	2024년 10월~12월	약 1조원		ESR엔탈스퀘어리츠	2025년 6월	약 1,500억원	구분	개별 리츠 투자	패시브 리츠 ETF	액티브 리츠 ETF	신규 상장	개인 투자 고려	시가총액 순 기계적인 매매	펀더멘털·거래량 등 분석 후 펀드매니저 투자 의사결정	유상 증자	청약 의사 결정 필요	기계적인 청약 참여	신주인수권 밸류에이션 후 투자 의사결정	배당 컷	개별적 대응 필요	편입 유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대응 가능	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구분	종목명	시기	규모																																																		
신규 상장	한화리츠	2023년 3월	약 3,200억원																																																			
	삼성FN리츠	2023년 4월	약 3,750억원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2024년 7월	약 1,800억원																																																			
	KB알파인프라	2024년 11월	약 9,750억원																																																			
유상 증자	대산별투리츠	2025년 7월	약 3,000억원																																																			
	SK리츠	2023년 7월	약 3,300억원																																																			
	신한알파리츠, 한화리츠 등 8개 리츠	2024년 10월~12월	약 1조원																																																			
	ESR엔탈스퀘어리츠	2025년 6월	약 1,500억원																																																			
구분	개별 리츠 투자	패시브 리츠 ETF	액티브 리츠 ETF																																																			
신규 상장	개인 투자 고려	시가총액 순 기계적인 매매	펀더멘털·거래량 등 분석 후 펀드매니저 투자 의사결정																																																			
유상 증자	청약 의사 결정 필요	기계적인 청약 참여	신주인수권 밸류에이션 후 투자 의사결정																																																			
배당 컷	개별적 대응 필요	편입 유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대응 가능																																																			
자료: 한국투자신탁운용																																																						

국내 신규출시 ETF 리스트 (최근 1개월)

상장일	티커	ETF 명	운용자산 (억원)	개요
12/23	0144M0	KODEX 미국드론 UAM TOP10	423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기체 제조사, 부품 및 드론 관련 기업 10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12/23	0144L0	KODEX 미국성장커버드콜액티브	2,183	미국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개별종목 옵션을 탄력적으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액티브 ET
12/23	0138T0	RISE 미국 S&P500 데일리고정커버드콜	303	S&P500 주식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일일만기 S&P500 ATM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패시브 ETF
01/06	0148J0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2,016	시가총액 및 키워드 유사도 기준으로 선정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15 개 기업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
01/13	0151S0	KODEX 미국 AI 반도체 TOP3 플러스	601	미국 AI 반도체 관련 기업 3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01/13	0150K0	KoAct 수소전력 ESS 인프라액티브	106	수소발전 설비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01/13	0152E0	SOL 배당성장탐색액티브	165	배당성장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는 예상 배당수익률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16 기준

국내 ETF 기초자산 유형별 Snapshot (주간)

구분	상장 종목 수	순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량
주식	768 개 (▲3 개)	212.6 조 원 (▲10.1 조)	18 억 주 (▼1,006 만)
채권	139 개 (0)	41.5 조 원 (▲1,767 억)	1203 만 주 (▲22 만)
부동산	12 개 (0)	2.1 조 원 (▲389.4 억)	619.7 만 주 (▲65.9 만)
혼합	67 개 (0)	9.8 조 원 (▲4,851 억)	1512 만 주 (▼3.5 만)
원자재	26 개 (0)	7.7 조 원 (▲6,035 억)	2298 만 주 (▲677 만)
통화	12 개 (0)	0.7 조 원 (▼76.7 억)	133.4 만 주 (▲73.4 만)
단기자금	38 개 (0)	49.6 조 원 (▲2,072 억)	543 만 주 (▲88.2 만)
종합	1062 개 (▲3 개)	324.0 조 원 (▲11.5 조)	18.6 억 주 (▼0 억)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1.9~2026.1.16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